

성장·일자리 두마리 토끼 잡으며 '포용 경영'의 주인공들은 순항



게티이미지뱅크



고용 창출·안정에 탁월한 성과 이뤄낸 기업·기관·단체 29곳 올해 첫 선정

전 연령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달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불안요인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20세 이상 응답자 3명 중 1명(35.9%)이 '일자리'라고 답했다. 전문가도 10명 중 7명(69.0%)이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 조사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환경 변화와 수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8월 전국 20세 이상 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생겨나야 하는데 이렇다 할 청신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선정한 '2018 올해의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29개 민간·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자리 대상'을 제정했다. 일자리 선도 기업의 실천적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기업·기관·단체들에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

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그 결과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온 29개 기업 및 기관·단체들이 올해 첫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선정은 공공 일자리 부문과 민간 일자리 부문을 구분해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에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 및 기관·단체들을 뽑았다.

지난 8월 1일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 331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대기업과 우수 중소기업 1000개 후보군을 대상으로 4차례의 최종심의를 거쳐 부문별 우수기관을 최종 가려냈다.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5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의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 계획 ▲사회경제적 책임 이행을 공통 항목으로 일과 삶의 균형·정년고용 등 10개 세부 항목을 평가했다.

수상 기업 및 기관·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일자리에 취약한 계층을 끌어안는다면, '워킹 맘'이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거나 고용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도 두드러진다.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생활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우수사례도 있다.

시간제 일자리와 선택적 근로제 등 노동 유연성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그에 맞는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공공기관 및 지자체도 동참하고 있다. 투자절벽과 고용 침체로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포용 경영'의 주인공들은 성장과 고용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유유히 순항하고 있다. 김정만 객원기자

◇2018 올해의 일자리 대상

여성고용	롯데홈쇼핑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취약계층 고용	이랜드리테일
고용안정	에스피씨 지에프에스
민간 일자리 부문	한샘
	위라벨
	신세계이앤씨
	모범기업
	코미코
	선진뷰티사이언스
	동구바이오제약
청년고용	바디프랜드
	부건에프앤씨
청년고용	국민연금공단
	공영홈쇼핑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한국전력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공공 일자리 부문	세종도시교통공사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워라벨 모범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시설공단
여성고용	우체국금융개발원
상생고용	국립생태원
고용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고용안정	사람학교교직원연공금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공 일자리 부문-지방 자치단체	청년고용
	충청남도
	고용지원
	영천시

심사평

끊임없는 조직 혁신과 역량 강화... 포용적 성장 토대 만든다

정부는 불평등 해소와 형평성있는 분배를 실현하는 포용적 성장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업이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돼 소득 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면 함께 더불어 사는 포용적 사회가 구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적 사회가 구현되는 핵심 요건은 기관들의 혁신 역량 제공이다.

혁신역량은 개별기관 수준을 넘어 생태계 중심 혁신역량이 높아져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진화방향은 아직 모호하고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개별 기관 혁신역량 개발보다 관련 기관들이 가치를 중심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선도할 때 성장의 범위와 성장 속도도 높아진다.

조선일보가 '2018 올해의 일자리 대상'을 처음

으로 제정한 취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기업을 선정 및 시상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포용적 사회구현에 기여하는데 있다. 조선일보는 선정 부분을 미리 공고하고 후보기관들로부터 응모를 받아 5명의 학계 및 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기업이 제출한 공적서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검토했다. 심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올해 경영활동 관련 기사를 검색해 대상 수상사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했고,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구분하여 수상후보사를 검토했다. 심사시 일자리 창출 실적, 일자리 질의 개선효과와 같은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한 기업에게 가중치를 두어 평가했다. 그 결과 부문별로 29개 기업과 기관·단체들이 대상 수상사로 선정됐다.

이 행사의 1회 수상사로 선정된 기업과 기관·단체들은 지속적 혁신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도모하고, 생태계 차원의 동반성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기 바란다.



유정조·동국대학교수



"꿈과 희망이 반짝반짝"

사랑 평화 번영

'People, Peace, Prosperity!'

KOICA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꿈과 미래를 지원합니다.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